

갯잎 수경재배 표준 재배법 개발

잎채소 범용액, 농가마다 수질이 달라 각 상황에 맞게 보정·사용해야 양분 보유 혼합용토, 기본적으로 초기 생장이 가장 빠르고 생산량 많아

작년 국내 작물 수경 재배에 최적화된 재배판 및 포트 개발하는 등 자체 국산화로 수경재배가 활발해져 가는 가운데, 열매채소와 달리 잎채소는 수경재배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국내 총 수경재배의 5% 이하로 나타나 재배면적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잎채소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했다.

18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에 따르면 잎채소 한 해(2020년 기준) 재배면적이 약 1,100헥타르(ha)에 이르고 연간 4만 톤 정도 생산되는 주요 소득 작목으로, 최근 홍콩과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토양재배가 대부분이어서 이어짓기(연작)에 의한 생리장애나 토양 전염성 병해충 발생으로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일부에서 잎채소 수경재배를 시도하고 있지만 배양액이나 급액 농도 적



잎채소 수경재배 실험(급액 농도)

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이 연구는 실험을 통해 잎채소 수경재배에 필요한 영양액(배양액)과 양분 농도, 토양 역할을 하는 배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배양액은 양액별 생산량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잎채소

(엽채류) 범용액'이 부분적인 양분 결핍 등 생리장애가 나타나지 않아 농가에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농가마다 수질이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게 보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잎채소(엽채류) 범용액'을

EC(전기전도도) 0.75~1.50dS/m(데시 지멘스미터) 범위 내에서 시험해 양분 급여(급액) 농도를 알아본 결과, 급액 농도가 높을수록 잎 수와 전체 수량이 많았다.

특히 수확을 시작한 뒤부터 EC 1.5dS/m로 급액했을 때 EC 0.75dS/m보다 '납천' 품종은 9~22%, '소미랑' 품종은 11~21% 생산량이 증가했다.

아울러 실험에 사용된 배지 4종 중 양분을 보유한 '혼합용토'가 기본적으로 초기 생장이 가장 빠르고 생산량도 많았다.

'필라이트'는 초기에 뿌리내림이 늦어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장기간 재배할 경우 이러한 단점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개발한 기술을 올해 연말 농업기술개발사업 '잎채소 수경재배' 편에 추가로 신고,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이종근 소장은 "잎채소 수경재배 기술이 수출에 기여하고, 작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탄소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체계 구축

탄소신용원-FIT 시험연구원, 협약 체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은 18일 FIT시험연구원과 탄소 소재·부품에 대한 품질시험과 검사, 신뢰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섬유소재 시험·인증 분야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진 FIT시험연구원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양 기관 간 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탄소복합재 관련 신뢰성 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소재·부품·제품의 품질시험, 검사, 인증 협력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공동발굴 및 추진 ▲신뢰성 평가 모델 개발 및 신뢰성 인증 지원 ▲국내외 표준화 협력 ▲인력교류 및 산업동향 정보 교류 등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부품에 대한 시험·평가·인증에 대한 기

반을 구축하고, 기업이 생산한 탄소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탄소소재 및 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표준 마련 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은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의 성장을 위해 탄소 소재·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섬유소재 분야 대표 시험·인증 기관인 FIT시험연구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최대희기자



LX-권익위,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협력방안 모색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18일 전주 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LX공사 김정렬 사장 과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참석해, 양 기관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기반 구축이 완료된 LX공사의 디지털트윈 전주와 메타버스 시민 권익위의 'AI 위험진단 예측 플랫폼' 과학적 분석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이번 협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메타버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원 접수와 관련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이 쌓여 있는 민원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예측해 제공하는 'AI 위험진단 예측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희 기자



농협 남원지부, 시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회의 참석

NH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와 관내 7개 농·축협 및 남원시조공법인은 지난 15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남원시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실무지원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참신한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소통 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마련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계은행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물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김동수 원장)은 '전북 농식품 창업성장 패키지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8개 농식품 창업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내 농식품기업 성장 지원

바이오진흥원, 8개 농식품 창업기업들과 협약식 개최 5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단계별 기술 이전 등 추진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김동수 원장)은 '전북 농식품 창업성장 패키지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으로 올해 5년 차를 맞고 있다.

5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업 사업회의 단계별 기술 이전, 시제품 제작, 상품화 디자인, 사업화로 각 단계별 기업 수요에 맞춰 패키지형 지원을 시행 한다.

올해는 창업 신규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기술 확보, 판로 확대 계획, 대표자의 사업화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8개 농식품 창업기업을 선정했으며 18일 협약식과 함께 기업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인 '구선순반'은 편의식 소스제품 아이템을 인정받

아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사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 밀키트 제품의 고도화를 준비중이다.

'순진한푸드'는 전주식 짬뽕순대 국밥 밀키트 출시를 준비중인 기업으로 소비자 입맛을 선도하는 전주식 전통식품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빛모닝'은 청년 9명이 힘을 모아 전주·익산을 중심으로 신선 샐러드 새벽배송 제품 마케팅을 확대중으로 현재 인기에 판매되고 있으며, 배송 권역을 확대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 확대, 배송중 채소 무름방지를 줄이기 위한 기술 연구가 한창이다.

'썬시사이드업'은 전북지역 등외품 농산물을 활용해 천연과즙 미스를 개발,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많은 농산물이 확대를 위해 지역특화품목 탐색이 진행중이다.

'썬에프엘푸드'는 매운맛의 최고 브랜드가 되기 위해 기존매뉴인 매운닭발에 닭갈비 메뉴 등을 추가해 품목확대

를 꾀하고 있다. 제이펍푸드는 최근 한식소스로 각광받는 김치시즈닝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추진중이다.

(썬유닛)은 간편식 치즈떡갈비의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썬유스타팜)은 수산물을 활용한 편의식 즉석요리 제품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편의점용 소포장 제품을 활발히 개발중이다.

올해 최종선정은 청년창업자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 아이템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의 구사 등 신선한 전략을 선보인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전라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은 2022년 선정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과 함께 제품개발 R&D, 경영, 마케팅, 노무,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김동수 원장은 "이번 사업 외에도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 농식품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추가 지원 사업을 발굴해 농식품 창업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전북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

농진청, 결정고시 개정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8일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이 개편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관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아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개편 주요 내용은 우선 등급 평가체계 효율화로, 평가 부문을 4개(체험, 교육, 숙박, 음식) 부문에서 3개(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개편하며, 평가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이고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안전·위생교육 이수, 등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

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으며, 시설 및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을 2배 가까이 높였다.

아울러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을 늘린다.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생,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적도의 세분화(3단계-6단계)로 변별력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지원개발원(031-8084-95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희 기자



NH농협 익산시지부와 익산시 관내 농·축협은 지난 15일 다변화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농협 익산시지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

NH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이상우)와 익산시 관내 농·축협은 지난 15일 다변화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이상우 지부장을 비롯한 익산관내 조합장, 상임이사 등 20여 명과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등을 견학하며 미래 먹거리(대체작물) 발굴과

관내 스마트팜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우 지부장은 "열악한 농촌의 미래를 위해 향후 스마트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과 연계한 신소득작물 발굴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인 실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